

News & News

## ‘개성공단 이동구강병원 설치 사업’ 추진 남구협·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과 합의서 체결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상임의장 안성모·이하 남구협)가 추진 중인 ‘개성공단 이동구강병원 설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서가 지난 10월 9일 공식 체결됐다. 남구협은 지난 9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이하 북측 개발총국)이 최근 인편을 통해 관련 합의서를 남구협 측에 보내 왔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은 지난달 12일 김동기 부회장, 조영식 기획이사, 박남용 건치 남북교류특별위원장 등 남구협 실무진이 개성공업지구를 방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관계자 및 북측 실무진들과 개성공단 이동구강병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사업에 필요한 통관절차를 간소화 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관련 합의서를 체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남구협은 이번 합의서 체결로 개성공단 이동구강병원 설치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합의서에는 북측 개발총국과 남구협이 개성공업지구 내 북측 노동자들의 구강치료를 위해 버스를 이용한 이동구강병원을 운영하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남구협은 이동치료를 위한 버스, 구강치료설비 및 설비 운영, 보철에 필요한 장비,약품, 사무비품을 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북측 개발총국에서는 이동치료를 위한 의사와 간호원들을 보장하고 양측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원의 출입 및 각종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 협조키로 했다. 합의서에는 특히 남측 의료 및 의료기술진들이 필요한 시기에 개성공업지구로 들어와 구강설비 및 장비운영방법, 기술이전, 치료협의, 구강위생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됐으며 양측 모두 관련 사업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News & News

## 전문의제 정착 방안 찾기 열띤 공방 치과의사 전문의제, 치협 토론회 성료

딜레마에 빠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8% 전문의 배출이라는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고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치협이 주최한 ‘올바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0월 13일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각 치과계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원 위원(치과의사전문이제도시행위원회), 장영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전 치과의사전문이제도시행위원회), 이근세 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 최재갑 대한구강내과학회 회장 등의 주제발표와 참석자들의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40여년간 논란이 돼 왔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실시의 대전제였던 ‘소수정예’ 원칙, 그 중에서도 ‘올해 졸업생의 8%’ 소수정예 전문의를 배출한다는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각 측의 접근 방법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원 위원은 “대의원 총회의 결의사항은 꼭 지켜져야 할 대전제”라면서 “치과의사 전문의 8% 배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그 뒤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지부장 대표로 발제에 나선 이근세 회장도 “기존 치과의사들은 이미 기득권을 다 포기했다”면서 “소수정예에 대한 원칙 아래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 일선 개원의들의 주장을 대변했다.

시행 첫 해인만큼 소수정예 원칙은 반드시 고수하고, 동반되는 문제는 추후 회원들의 합의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한다는 개원의의 의견에 대해 공직의 입장은 상당부분 차이를 보였다.

장영일 병원장은 “교육기회 제공, 병원운영에 필요한 전공의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수정예 원칙에는 공감하나 적정 배출 비율을 25%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협 당사자인 오민석 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치과의사 전문의를 8%에 맞추기 위해 난이도 조절 등의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인지된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김주심 사무관은 “전문의 시행 첫 해이니만큼 시험이 무리 없이 치러져 시험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News & News

## 치과 수가 2.9% 인상 타결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63.6원으로 인상

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웅)과 내년도 수가를 2.9%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10월 18일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유형별 수가 계약에서 치협은 다섯 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여 2008년도 환산지수를 2.9%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해 치과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의 절대치가 61.8원에서 63.6원으로 인상, (조산원 제외) 의약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됐다.

이로써 공단이 치과에 지급해야 하는 증가분은 2백15억에 이르고, 본인부담금을 포함하면 300억 정도가 증가된 셈이다.

협상 결과 의약단체 7개 유형 중 치협을 비롯한 한의협, 약사회, 조산원 등 4개 유형이 수가 협상에 성공했다. 의협, 병협은 계약 만료일인 17일까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약이 결렬돼 결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최종 결정하게 됐다. 한방을 대표하는 한의협 회장은 단가 61.5원을 63.3원으로 2.9% 인상해 공단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약국 및 한국회귀약품센터를 대표하는 약사회장은 단가 62.0원을 63.1원으로 1.7% 인상해 계약을 체결했고, 조산원을 대표하는 간협 회장은 단가 62.1원을 80.7원으로 30% 인상해 계약을 체결했다.

수가 계약이 결렬된 의협과 병협의 협상과 관련, 공단은 협상 과정에서 의협에 2.5%를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의협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병협에는 1.6%를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협상 결과에 대해 결코 만족할 수는 없지만 공단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얻어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과거에는 모든 의약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 치과만의 이야기를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유형별로 계약을 진행함에 따라 '직항로'가 생긴 셈이다. 협상 과정에서 공단과 우리와의 입장차이의 폭을 줄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마 이사는 특히 "이번 환산지수 계약을 위해 안태식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요청하고 연구를 위해 회원 900여명에게 조사표를 의뢰해 200여명이 답변을 해줘 큰 도움이 됐다"며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조사표에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을 텐데 성실하게 응대해줘 공단으로부터 우리의 연구 내용을 인정받고 연구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거듭 감사함을 표한다"고 밝혔다.

News & News

## 내년부터 치의 1인근무 치과 출장검진 가능 검진기관 인력기준 완화·검진비용 현실화 추진

오는 2008년부터는 치과의사 1인이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도 출장검진이 가능해 진다.

또한 구강검진 비용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생애전환기 연령대인 만 40세와 66세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이달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인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0월 29일 치협 및 전국지부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교육자로 참가한 김한숙 복지부 건강생활팀 사무관, 박두신·윤이영 공단 건강관리실 차창 등은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의 추진 경과와 더불어 '구강건강검진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최근 5년간 구강검진 수검률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수검률 증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년부터 출장 구강검진기관의 인력 기준을 현행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검진비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구강검진 비용의 경우 기존 일반 구강검진이 치과 의원 외래초진료(1만310원)의 30.7% 수준인 3170원인데 반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애전환기 구강검진은 초진료의 52.1% 수준인 5370원(66세)으로 검진비용이 산정됐다.

또 치면세균막 검사가 포함되는 40세의 경우 8370원이 검진비로 책정됐다. 특히 이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영유아 구강검진은 치과의원 외래초진료의 100%가 반영되는 등 검진료가 상당부분 상향 조정됐다.

공단 측은 또한 현행 초진료의 30.7% 수준인 일반 구강검진도 오는 2009년까지 의원급 재진료 수준으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